

새로운 꿈 창조하는 미국의 '뉴에이지북'

중산층문화로 흡수되며 출판의 전영역에 큰 영향 끼쳐

유은영

美위스컨신대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뉴에이지에 관한 관심은 오래전에 사라졌으나, 새로운 종류의 깨달음을 다루는 책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서양, 특히 미국 출판계에서 뉴에이지(New Age)란 용어는 출판의 범주에서 별 의미없는 말로 간주되어 왔다. 이 용어는 사실상 논픽션 출판의 전영역에 걸쳐 적용될 수도 있으며, 특정한 픽션 장르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뉴에이지란 용어는 성장하는 시장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용어로 아직도 어휘집에 남아 있으며, 지난 11년동안 ‘뉴에이지’라고 칭할 수 있는 분야의 책만을 출판해 온 클로우(Clou)사나 몇몇 출판사들에 의해 ‘정신적 구도자(spiritual seekers)’로 설명되고 있다.

클로우사에 따르면 뉴에이지의 전형적인 프로파일은 정신적인 것, 또는 대체정신적인 것 또는 정신의 영속성을 좀더 추구하는 유대교-기독교의 전통에서 성장해왔을, 35~36세의 중상류층의 백인 여성이다. 지난해 이 출판사는 기독교의 여성관에 대한 대안적 견해를 제공하는 「설화석고를 가진 여인(The Woman with the Alabaster Jar)」과 핵무기와 전세계적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온 가부장적 전통의 성장을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다룬 「가십, 고르곤, 그리고 노파(Gossips, Gorgons and Crones)」를 출판했다.

시장규모 점차 커지는 추세

뉴에이지 책의 소매업자들의 수는 80년대의 전성기를 고비로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몇년간의 대형서점들의 판매동향을 보면 대부분의 출판사들의 기간서 목록판매가 조금이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통업자들의 통계수치가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뉴에이지 책 시장의 필요에 응하는 소매업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뉴에이지 자료를 다루는 최대 유통업체인 뉴리프(New Leaf)는 지난해에도 체인 서점에는 유통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재확인했는데,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28,911종을 담고 있다. 뉴에이지류로 간주되는 책의 판매는 뉴리프와 무빙 북(Moving Books), 북 피플(Book People), 그리고 잉그램(Ingram)사 등의 경우 지난해 12~15% 정도 증가하였다.

미국 제2의 우편 주문 카탈로그업체이며, 뉴에이지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인 레드 로우즈(Red Rose)는 뉴에이지 소매시장에 도매판

매를 한다. 이것은 7년전만 해도 연 25,000달러의 사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천만 달러를 넘었다.

11년 동안 ‘밴덤 뉴에이지(Bantam New Age)’ 임프린트를 출판해온 밴덤사를 제외한다면, 이 분야의 중요한 선수들은 뉴에이지가 지닌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을 삼가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식, 새로운 대안, 영원의 철학 등과 같은 완곡어법으로 목록을 지속시켜왔다. 원래 ‘New Age Publishing and Retail Association’으로 알려졌던 ‘NAPRA’는 ‘New Alternatives for Publishing, Retailing and Advertising’으로 스스로를 칭하고 있다. 이 단체의 이사인 메릴린 맥과이어(Marilyn McGuire)는 뉴에이지란 용어는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맥과이어는 이 분야에는 새로운 사색자들 뿐 아니라 더욱 새로운 소비자시장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 식품점이나 유기농법 식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좀더 많은 돈을 지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보디빌딩에는 관심이 없지만, 동양의 종교나 철학 등을 배우려 한다. 이들은 우리가 마음, 육체 그리고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많은 기관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외적인 권위를 구하기보다는 내부를 보려고 한다.

뉴에이지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래학자로 불려지는 출판인 제레미 타처(Jeremy Tarcher)는 이 용어가 매스미디어에 의해 너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정의하는 것과 이 운동에 수반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고 당혹감을 표현했다. 약 4년전 타처는 “이 용어는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타처에 의하면, “90년대 뉴에이지 출판의 목적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별한 범주에 고립시키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내로 통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며, 이 상품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나 좋은 충고의 개념으로 마케팅하려는 것이다.” 그의 소견은 뉴에이지 감각으로 미국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점령했던



중산층독자들의 호응으로 뉴에이지북이 미국출판의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사진은 국내 서점의 뉴에이지북 코너.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Women Who Run with the Wolves)」, 「늙지 않는 육체(Ageless Body)」, 「무한한 정신(Timeless Mind)」, 「삶과 죽음에 관한 티벳인의 책(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과 같은 책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 그리고 아무도 이러한 베스트셀러들을 뉴에이지 종류의 책으로 마케팅하고 있지 않다.

최근 뉴리프사는 뉴에이지란 용어를 피하고 책들을 전통적인 출판의 카테고리를 반영하는 형이상학, 심신상관학적 건강, 대체 의학, 의식있는 삶 등 4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마지막 카테고리인 의식있는 삶은 문화와 환경에 관한 관심을 포함한 자조와 성장이라는 두 영역으로 다시 나뉜다.

영원한 지혜 탐구하도록 부추겨

잉그램사의 마케팅 디렉터인 닐 웹(Neal Webb)에 따르면, “뉴에이지는 마케팅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상품의 측면에서 볼 때 모호한 용어이다. 이 분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용어의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 한다. 신뢰도를 갖고자 노력해온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장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변경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밴덤사는 더이상 ‘밴덤 뉴에이지’나 ‘밴덤 뉴사이언스’ 라인을 별도의 카탈로그로 마케팅하지 않고, 대신 「뉴에이지 매거진」이나 「요가 저널」 또는 「NAPRA 트레이드 저널」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뉴에이지 시장에 직접 광고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즉, 시리즈 이름이나 로고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덧붙여

각각의 책이 심리학, 종교, 건강 또는 여성학과 같은 표준 카테고리를 붙이는 것이다. 현재 뉴에이지라 불리는 책들은 서점 전체에 퍼져 진열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책들이 진열되기를 바란다”고 편집장인 토니 버뱅크(Toni Burbank)는 말한다.

동양의 종교와 정신, 명상에 관한 많은 책을 출판하고 있는 비콘사(Beacon Press)는 뉴에이지란 용어를 사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출판사는 전통적인 종교서적과 구별되는 종교서적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만 이 용어를 사용한다.

삼브할라 출판사(Shambhala Publisher)의 대표 사무엘 베르콜츠(Samuel Bercholz)는 동양의 종교 및 철학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뉴에이지 라벨의 사용을 계속 거부해 왔다. 그는 이 용어가 원래 레코드 업계와 결합된 마케팅 용어였는데 출판계로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삼브할라사의 홍보팀은 현재 출판되는 책과 근간도서의 제목을 「덧없음: 일시적인 고용과 다름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법(Temp: How to Survive and Thrive in the World of Temporary Employment)」, 「아이키도와 자연의 조화(Aikido and the Harmony of Nature)」와 같이 구체적으로 뉴에이지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책들이 뉴에이지적 외관에서 파생된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해 영감과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영원한 지혜를 탐구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퍼블리셔즈 위클리」지의 종교도서 베스트

출판기획팀입니다

그 동안 기획하고 만든 책들입니다.

<강통...>은 2년 동안 만들었고, <못생긴...>은 1년 정도...
그렇게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신간, 94년 8월 16일 펴냄



▶신간, 94년 8월 16일 펴냄



▶신간, 밀란 쿤데라의 신작, 94년 7월25일 출간



▶컴퓨터 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책, 베스트셀러 92년1월부터~



▶모델 김동수를 대중 스타로 만들어 준 책, 베스트셀러 93년2월부터~



▶남자 옷입기에 대한 최초의 일반물, 5대 일간지가 격찬한 책, 베스트셀러 93년7월부터~



▶지독하게 기계를 싫어하는 이현세 씨가 컴퓨터를 배운 이야기, 베스트셀러 93년7월부터~



▶KBS 미니시리즈로 방영된 <폴리스>를 소설화한 책, 두 달 만에 10만 부가 팔린 소설 93년12월 출간~



▶밀란 쿤데라가 인정한 번역으로 만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바다는 밀란 쿤데라의 독점 대리인입니다. 10만 부 넘게 팔린 고급 독자를 위한 소설

셀러 목록에 매월 고정적으로 오르는 「삶과 죽음에 관한 티벳인의 책(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을 담당했던 하퍼 샌프란시스코사의 편집장 에이미 허르츠(Amy Hertz)는 일반인들이 '불교'를 뉴에이지 계열로 간주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불교란 원래 정통성 있는 종교로 정신적 고행을 강조하지만, 캘리포니아를 벗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뉴에이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허르츠는 "미국에서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일례로 어떤 여성지든 펼쳐보면 모든 여성지들이 뉴에이지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퍼 샌프란시스코사는 오랫동안 뉴에이지 출판 분야에서 선두주자였지만, 이 출판사는 책 제목에 한번도 뉴에이지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퍼 샌프란시스코사의 사규에 의하면, 이 출판사는 "공동체 사회의 정체성...에 관한 정신적, 철학적 및 심리적 질문과 세계관에 관한 질문을 탐구하는 책을 출판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허르츠는 미국 전 인구의 98%가 신비론자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인문학적 상상력에 새로운 꿈 제공

레웰린(Llewellyn)사는 자사를 '정신과 마음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출판하는 회사로 본다. 이 출판사는 불가사의, 민속학, 천문학, 자구(self-help) 및 스페인어로 된 새로운 계열의 책 등에 관하여 매년 60여종씩을 출판하고 있으며, 발행부수 및 종수는 1986년 이래 300%씩 증가해왔다. 이 출판사의 발전은 뉴에이지 독자수의 성장에 힘입은 것이라고 홍보 담당자는 말한다. 레웰린사는 판매에 있어서도 지난 3년동안 20% 이상의 성장율을 보였다. 판매 증가의 강력한 요인은 월든북스(Waldenbooks)와 B. 달튼사(B. Dalton)의 적극적인 주문 패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4년에는 「세계의 의식 : 전세계의 신화와 불가사의(Global Ritualism : Myth & Magic Around the World)」, 「명상과 인간 성장(Meditation & Human Growth)」, 「삶의 활력 찾기(Awakening the Life Force)」등의 책도 출판할 예정이다.

'내적 전통(Inner Tradition)'이란 임프린트로 20년이상 출판을 해온 이휴드 스펀링(Ehud Sperling)은 새로운 흐름에 의해 제시되는 가능성의 범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딜레마에 해결책을 발견했다. 그는 뉴리프사의 책들과 유사한 4개의 별도의 임프린트 하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게 절충적인 입장에서 400종의 책을 출판하여 왔다. 이 4가지의 임프린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적 전통(Inner Tradition)'은 "내적인 지혜와 영원한 철학에 초점을 둔 세상의 정신적, 문화적 및 신비적인 전통"을 표현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책으로는 「동정녀 어머니 크론 : 세 여신에 대한 신화와 미스테리(Virgin Mother Crone : Myths and Mysteries of the Triple Goddess)」가 있다. '운명책(Destiny Books)'은 "자아 변화, 밀교 및 심리적 안정 등을 특별히 강조하는 뉴에이지와 형이상학적 책들"을 다루는데 「라코타 스웨트 로지 카드(Lakota Sweat Lodge Cards)」와 같은 책을 들 수 있다. 「아베르베다 : 균형있는 삶(Aurveda : A Life of Balance)」과 같은 대체 의학이나 총체적 건강에 관한 책들은 '치료의 예술(Healing Arts Press)' 계열에서 출판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소비자 및 환경에 관한 이슈, 「완벽한 카마 수트라(Complete Kama Sutra)」와 같은 미술책들은 '파크 스트리트 프레스(Park Street Press)' 기치 아래 발간된다.

스펠링은 뉴에이지의 새로움은 "인본주의적·인문학적 상상력에 씨를 뿌리는 새로운 꿈의 창조"라고 설명한다. 자타가 인정하는 '뉴에이지 인물'로서 그는 그의 직업이 뉴에이지라는 라벨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새로운 상상력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스펠링은 「던 오니쉬(Dean Ornish)」(던 오니쉬 박사의 심장병 치료 프로그램 : 랜덤, 발랜타인 페이퍼 간)를 뉴에이지책의 건강 분야에서 가장 완벽한 예라고 본다. "이 책에 실린 모든 기술들은 우리의 출판 프로그램에서 지난 20년간 설명해왔던 기술들이다." 스펀링은 대안적인 아이디어들이 사회에 널리 흡수됨으로써 주류를 이루고 있는 효과를 인정한다. 제레미 타처와 마찬가지로 그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급속하게 보이는 것으로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출판에 있어서 이러한 추세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뉴에이지의 흐름이 출판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문화적 양식들이 이 흐름에 압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스펀링은 강조한다.

책을 잘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출판사가 있지만 잘하는 곳과 잘하지 못하는 곳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수억을 까먹으면서도 번듯한 책 하나 만들지 못한 출판사도 있습니다.

책을 잘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전집과, 그림책, 단행본 등을 잘 만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좋은 책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그 속에 진실이 담겨야 합니다.

진실을 읽어내는 눈을 가진 '전문 편집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 보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과 함께 독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편집자가 독자의 손길을 잡습니다.

알립니다

편집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편집'을 해 달라는 전화를 주셨지만 죄송스럽게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대가 되는 좋은 원고가 있다면 멋진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다저작권회사 출판기획팀

책을 잘 만드는 기획자, 편집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8-10 화성빌딩 2층 ☎ 518-6534 팩시밀리 518-6535